

<論說>

# 獸醫學科教育의 分析과 提言

全 允 成

우리는 헐벗은 나라에서 絶對不足한 收入으로 먹고 배우며 살고 있다. 天然資源은 없고 基幹産業은 發展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人口는 많아져 우리의 힘만으로는 좀체로 잘살기 힘든 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韓國이다. 國家와 民族의 삶이 그럴진대 學問의 殿堂인들 平安할리 없고 하물며 學問中의 한 分科인 獸醫學이 그 教育이나 實務面에서 滿足스럽다고 할 정도로 이끌어져 나간다고는 期待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教育은 人間이 營爲하는 삶의 價値와 이들이 所有하는 學問의 發展을 期約해주는 커다란 指標요 나아가서는 남만치 잘 살수 있게 하는 하나의 國民에의 投資인 것이다. 이 事實들은 獸醫學에도 通用되어서 獸醫學을 보잘것 없다고 그릇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獸醫學이 지니는 本然의 意義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이 必要한 것이고 이 學問을 배우려는 獸醫學徒에게는 그들이 지녀야 할 目的의 意識을 불어 넣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여기에 獸醫教育에 따르는 몇 몇 問題를 들어 比較 分析하고 提言하려고 한다.

## 1. 獸醫學의 定義

獸醫學이란 家畜의 疾病을 豫防診斷 그리고 治療케 하는 醫學의 한 分科라고 「웨브스터辭典」은 定義하고 있다.

人醫學에서는 家畜대신 사람이 지닐수 있는 疾病을 豫防하고 診斷治療를 하다보니 그 內容은 獸醫學과 극히 共通되는 것이고 畜産學은 그 對象이 家畜이라는 점에서 共通되고 또 獸醫師가 活動하게 되는 分野가 共通될 수 있으며 獸醫學의 內容인 疾病의 豫防診斷 및 治療는 家畜의 繁殖飼養 그리고 判定등으로 대치되는 것이다. 추려 말해서 獸醫學과 人醫學은 그 內容에 있어서 서로 共通되나 對象이 다르고 獸醫學과 畜産學은 對象物에 있어서는 서로 共通하나 그 內容은 다른 것이다. 이와같은 事實은 獸醫學의 大學課程 「커리큘럼」이 人醫學의 것과 비슷해서 解剖學 組織學 發生學 醫化學 生理學 病理學 公衆衛生學 寄生蟲病學 그리고 微生物學 등의 十個 基礎學科와 內科學 外科學 産科學 傳染病學 그리고 放射線學 등의 五個 臨床學科로 構成되어 있는 것으로서 立證되고 있다. 따라서 獸醫學에서는 다른 어떤 學問例를 들어서 齒醫學이나 藥醫에서 보더라도 全般的인 醫學을 「덧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2. 獸醫學의 社會的貢獻

獸醫學을 배운 사람이 社會에 貢獻하는 곳은 世界保健機構 世界食糧農業機構 그리고 國際獸疫會議機構 같

은 國際機關을 爲始해서 農村의 開業獸醫師에 이르기까지 廣範하다. 이들이 從事하는 곳과 일의 內容에 있어서도 여러가지이다. 첫째 人獸共通傳染病이나 食品에 依한 人類의 保健을 맡아본다. 둘째 家畜疾病의 豫防診斷 그리고 治療에 쓰여지는 生物學的 製劑를 만드는데 從事한다. 셋째 家畜의 檢疫을 맡아서 이의 輸出入을 可能케 한다. 넷째 開業獸醫師로서 都市周邊이나 農村에서 家畜의 保健을 맡아 畜産人으로 하여금 家畜의 增産이 可能케 한다. 다섯째 獸醫學의 知識을 必要로 하는 一般醫學이나 營養化學 같은 다른 分野에서 하나의 基礎研究家로 從事한다. 끝으로 獸醫學을 배운 사람은 獸醫部門의 農村指導에 從事하여 農村의 副業을 向上시킨다. 이밖에도 獸醫師는 각종 都市 및 農村企業에 直接 또는 間接으로 貢獻하고 있다.

## 3. 獸醫教育機關의 分析

「유럽」에 獸醫教育機關이 세워지고 百年이 훨씬 지난 오늘날 世界에는 150餘個의 獸醫教育機關이 있다. 이것의 學制別構成에 따르는 地域의 分布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獸醫科大學이 가장 많은 곳은 朝鮮의 24個大學이고 이밖에도 伊太利의 9個大學 獨逸의 6個大學 그리고 英國 西班牙 및 유고슬라비아의 各 4個大學이 있는 것을 爲始해서 各國에는 한個 이상의 5年制獸醫科大學이 있을 뿐더러 全歐洲에서 約 80個의 獸醫科大學을 헤아릴 수 있다. 北美洲에는 美國의 18個 6年制 單科大學 캐너더의 2個 5年制 單科大學과 그밖의 4個國

에 4個大學이 있다. 南美洲에는 부라질과 아르헨틴의 각 3個 單科大學을 爲始해서 大部分이 5年制 單科大學인 20餘個가 세워져 있다.

濠洲와 아프리카洲에도 5年制獸醫科大學이 각각 2個와 6個가 分布되어 있다. 아세아洲에는 印度의 8個單科大學을 爲始해서 파키스텐의 2個 大學 그리고 버마 泰國 필립핀 세이론 이란 日本에 4年내지 5年制 單科大學이 各하나씩 있다. 中共에는 2個의 大學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중 泰國의 獸醫科大學은 綜合大學校인 泰國國立醫科大學안에 하나의 單科大學으로 運營되고 있다. 日本에는 單科大學外에 10個의 獸醫學部가 農大안에 있고 이와같은 體制는 臺灣에 하나있고 韓國에 6個가 있다. 韓國에는 1938년에 처음으로 오늘의 서울 大學校에 獸醫學의 殿堂이 세워진다음 1952년에는 國際의인 추세에 따라 單科大學으로 昇格運營되어 오다가 大學整備當時 다시 1938年の 體制로 되돌아갔다. 그런때 解放後 大學「불」과 더불어 全國各地에 獸醫學科가 亂立되었다. 즉 1950년에는 濟州農大에 1951년에는 全北農大와 全南農大에 그리고 1954년에는 서울 市立農大와 慶北農大에 그리고 1955년에는 晉州農大에 獸醫學科가 각각 생겼다. 이 過飽和狀態의 亂立은 大學整備當時 濟州農大 全北農大 그리고 서울 市立農大의 3個學科가 廢止됨으로서 그數가 줄었다가 그後 全北農大와 서울 市立 農大가 다시 復活되었고 濟州農大의 獸醫學科는 그대로 廢止되었고 國內 唯一한 獸醫科 大學은 學科로 格下되었다. 이상과 같은 事實에 立脚해서 알수 있는 것은 韓國만이 그 體制에 있어서 가장 後進的인 獸醫教育機關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우리 獸醫教育機關만이 發展할수 있는 素地가 마련될 수 있는 單科大學의 體制에서 벗어나고 있을 뿐더러 數의으로 絕對過剩狀態인 國內 6個의 學科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教育年限에 있어서도 極東 3個國(日本에서는 6年制改編이 論議되고 있음)인 韓國 臺灣 그리고 日本만이 4年制이어서 이것은 後進獸醫의 「모텔」이 되고 있는 것이다.

#### 4. 獸醫教育和 獸醫師의 條件

獸醫學이란 어떤 것이며 獸醫學의 社會에 대한 貢獻은 무엇이며 이와같은 獸醫學을 傳受하는 教育機關의 現況은 어떠한가를 앞에서 알아보았다. 거기에서 우리는 가장 後進的인 獸醫學과 獸醫教育機關 그리고 獸醫界를 지니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 暗示되었다. 獸醫界의 教育은 獸醫師 養成에 直結되고 獸醫師는 家畜과 農村에 關聯됨에 獸醫教育和 農村經濟는 相關關係를 맺고 있다. 또한 獸醫師의 質的인 向上은 오로지 後進

獸醫學에서의 脫皮만이 그것을 可能케 하는 것이고 이 問題解決은 獸醫教育에서 始作되는 것이라고 歸結지워진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獸醫教育에 關한 몇 問題만을 우리 既成獸醫界와 農村事情에 그 根據를 두어 分析하고 提言코져 한다.

첫째 獸醫師의 大量養成이 止揚되어야 한다. 獸醫業과 畜產業은 서로 均衡이 잡히지 않고 있다. 즉 韓國의 畜產業은 非企業化되어 있고 開發되어 있지 않아서 畜產業에 그 大部分이 就業되어야 할 獸醫師가 過剩狀態에 놓여져 있다. 韓國의 獸醫師數를 二千名이라고 하고 家畜數를 三百萬이라고 할때 獸醫師한 사람이 말을 수 있는 家畜數는 約 1,500頭이다. 이 數는 現業獸醫師外의 行政 및 研究獸醫師數를 包含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現業獸醫師一人이 正常的으로 다루어야 할 家畜數는 企業化狀態의 家畜數로 最少3천 頭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開業獸醫師 1人의 對象家畜數는 約 700頭이고 正常化되려면 獸醫師數가 現在의 4分之 1 以下로 줄거나 또는 企業化되어서 飼育되는 家畜數가 約 5倍로 增加되어야 하는 셈이 된다. 數年後에 家畜의 數가 5倍로 增加된다고 하더라도 就業獸醫師의 數인 2,000을 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現在大學卒業獸醫師와 農業學校 그리고 檢定試驗出身獸醫師의 總數를 約 3,000으로 計上하고 있고 大學과 學生定員이 整備됨으로서 有待할 수 있는 韓國獸醫師의 「풀」은 約 3,500名이 된다. 따라서 現存學生定員 120名이 70名 内外로 더 減少되어 排出되는 獸醫師의 數를 줄여 「풀」이 約 2,000名이 되게 해야한다.

둘째 全國의 獸醫師가 알맞아야 그들 自身의 生活質의 向上이 온다는 것은 分明한 것임에 獸醫師養成을 大幅 줄여야 하며 따라서 教育機關을 廢止統合해야 한다. 每年 70名의 獸醫師를 排出하려는 한個의 單科大學이면 充分하다. 學科의 統合은 곧 教授의 統合이요 施設의 統合임에 質과 量의으로 不足한 教授와 施設을 補充強化할 수 있는 것이다. 10名内外의 教授와 施設 없는 建物만 가지고 獸醫教育을 한다는 國家는 아마 우리의 경우 뿐일 것이다.

셋째 獸醫教育學科가 改編되어야 한다. 우리의 獸醫教育에도 두가지의 修正이 가해져야 한다. 하나는 우리의 獸醫學이 正常的이여 國際的인 水準에서 떨어지지 않게하기 爲하여 豫備教育課程을 設置해야 한다. 바꾸어 말해서 醫學教育을 豫備基礎教育없이 이루어지기 힘들어서 獸醫學에서도 齒醫學이나 人醫學課程에서 처럼 豫科過程이 設置되어야 한다. 이 豫科過程은 우리

—(55頁에 계속)—

厚生에 利用을 目的으로 한 家畜을 爲한 業務이며, 畜産과 獸醫는 表裏一體의 關係에 있는 것이다.

獸醫 乃至는 獸醫學의 根源이 醫學의 一分科로서 發하고, 現在에 있어서도 그 學問의 性質이나, 獸醫의 業務가 사람아닌 家畜을 相對로 한다는 뿐이지, 外의 原理 術에 있어서 醫師와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한便으로 그이 相對 家畜을 中心으로 生覺할 때에는 畜産은 家畜을 기르는 것이고, 獸醫는 그 疾病의 豫防治療하는 것이라면, 醫學은 耕種農業에 對한 病理昆虫農業等的 關聯性과 對等한 位置에서 畜産學에 關係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植物의 病理 昆虫 農業等이 微生物이나 導理化學을 基礎로 하고 있으나, 그것이 農作物을 爲한 것이기 때문에 農學의 分野에 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獸醫學도 畜産의 一分野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現代의 “獸醫”라는 것은 畜産과의 關係에 있어서 免許를 갖고 營業的診療行爲를 하는 것이 다른 眞正한 意味에 있어서는 診療와 畜産이 전혀 關聯性이 없는

別個의 것이란 것은 아니다.

即 獸醫는 그인 相對 家畜에 對하여 即 畜産 基本의 으로 잘 알아야 하겠고 畜産이 家畜의 衛生에 (獸醫學) 對한 知識 없이 成立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明白하다.

【參考文獻】

周禮  
爾雅  
六書尋源  
三國志東夷傳  
農業의 起源  
辭源  
韓國史 李丙壽

Principles of Veterinary science Hadley  
元亨療馬集

<筆者=서울農業大學教授>

—( 65頁에서 계속 )—

나라의 經濟事情과 畜産業을 참작해서 우선 一年間으로 하되 그 內容은 體驗을 얻게하는 畜産學을 1/4 거의 모든 獸畜學分野의 基礎가 되는 化學과 物理學을 2/4 그리고 一般生物學과 統計學等을 爲始한 그밖의 敎養科目을 1/4로 하는 것이다. 오늘의 醫學은 그것이 人醫學이건 齒醫學이건 또는 獸醫學이건간에 高等學校 過程만을 履修한 學生에게는 依授되기 어렵게 發展되어 있기 때문이요 또 醫學敎育은 그 正規過程만도 最少 4年을 所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基礎敎育이 解決되면 現在絶對不足한 正規課目的 敎授를 強化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獸醫臨床敎育에 革新이 있어야 한다. 醫學은 하나의 高度로 發達된 應用學問임에 終局的으로는 모든 기초醫學分野가 臨床敎育에 直結되는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말한 敎育內容의 改編은 臨床을 爲한 基礎의 強化이고 基礎學科는 臨床을 爲해 存在한다고 해도 過言은 아니다. 그러나 臨床敎育에는 다른 어떤 分野보다 더 힘이 傾注되어야 한다. 이르기 爲해서는 現存 家畜病院의 設立 適地選擇 및 經濟的인 後援이 있어야 한다. 이중 移動臨床施設은 實한 敎育材料를 얻을 수 있는 것이어서 특히 必要한 것이다.

다섯째 獸醫敎育에 있어서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 旣成獸醫師의 訓練이다. 왜냐하면 醫學은 날이거듭 될수록 發展하고 있기 때문이요 이 問題는 우리의 경우 거의 等閑視되어 있거나 또는 그 訓練自體가 극히 消極적이기 때문이요 우리 韓國獸醫界에는 옛날에 敎育을 받은 農業學校 및 檢定試驗出身獸醫師의 수가 많고 또 이들은 現在 우리 獸醫界의 中堅들이기 때문이다. 이 旣成獸醫師의 訓練은 農村 및 都市의 開業獸醫師와 各機關獸醫師의 國內訓練을 爲始해서 能力있는 獸醫師에게는 高次的인 海外視察과 研究에 까지 波及되어야 하는 週期的이고 엄격한 國內訓練은 大學敎授와 有能한 研究所의 職員이 맡아 서로 有機的으로 結合해 完遂되어야 한다. 또한 이 訓練은 보다 專門的으로 檢討되어 被訓練者의 能力과 專門分野에 알맞도록 施行되어야 한다. 끝으로 앞에 적힌 몇몇 提言이 政策樹立에 反映 그리고 實現되어 韓國獸醫學徒와 獸醫界에 勇氣와 發展이 깃들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

本文의 一部는 農大新聞에 게재한바 있음을 밝혀 둡니다.

<筆者=서울大獸醫學科 副敎授・獸醫學博士>